

2002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빈과 17세기 신앙고백의
입장에서 박형룡의 성찬론 연구

The Critique of Hyung-Ryong Park's "the Lord's Supper"
in light of Calvin and Confessions of 17th century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科 組織神學專攻

金 鍾 昱

칼빈과 17세기 신앙고백의
입장에서 박형룡의 성찬론 연구

The Critique of Hyung-Ryong Park's "the Lord's Supper"
in light of Calvin and Confessions of 17th century

指導 김 영 규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2년 12월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科 組織神學專攻

金 鍾 昱

목 차

I. 서론	1
A. 문제제기	1
B.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C. 전개과정	2
II. Calvin의 성찬관	4
1. 성만찬 논쟁의 배경	4
2.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finita non recipiunt infinita, finitum non est capax infiniti)는 원리와 성만찬과의 관계	7
3. Calvin의 증언들	10
4.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	13
III. 교부들의 신조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의 성만찬 이해	23
1. 칼케돈신조	23
2. 제2스위스 신앙고백	24
3.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
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
IV. 죽산 박형룡박사의 성찬론	36
1. 박형룡신학의 원리	36
2. 박형룡박사의 성찬이해	39
3. 기독교론에 있어서 개혁주의 독특성에 대한 이해정도	42

V. 결론	45
참고문헌	48

I. 서론

A. 문제제기

오늘날 한국장로교의 전통은 신학을 잃고 헤매고 있다. 어떤 것들은 카톨릭화 하고, 어떤 것들은 과거의 이단들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으며, 특히 알미니안적인 요소의 확대는 교회의 타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리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 힘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들을 지도하는 한국의 신학자들에게서 잠재적인 문제들이 있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적으로 개혁교회의 성찬 이해에 있어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리스도의 실재’를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로교회는 ‘성령임재설’로만 이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념설’ 정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찬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독론에 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이 전그리스도 안에, 즉 육체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밖에도 여전히 계셨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개혁주의의 기독론 이해에 있어 독특성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는 이러한 내용을 성찬론에는 물론이고 기독론에 있어서조차 이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몰이해 때문에, 오늘날 시행되는 성찬식에는 원리는 잊혀진 채, “이것은 내 몸이라”는 말에 그것이 정말 몸인 듯 여기는 이들이 있거나, “기념하라”는 말을 그저 단순히 기념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혹은 교회 내의 분쟁이나 불만이 있을 때에 수찬을 거부하는 등의 무분별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장로교의 바른 성찬을 위해서는 성찬론의 참의미를 되찾고,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는 기독론적 의미의 연구를 통해 바른 신학적

원리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오류들의 원인들 중 하나인 가르침의 부족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장로교의 큰 스승이신 죽산 박형룡박사의 성찬론과 기독론을 연구하여 재평가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고에서는 전통적 개혁주의 입장으로 Calvin과 17세기 신앙고백서들을 기준으로 하며 기독론의 특성상 칼케돈 신조를 언급할 수밖에 없기에 이들을 근거로 하였다.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입장들이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 나뉘어질 수 있기에 17세기의 개혁주의자들의 제입장을 언급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카톨릭과 Luther과의 입장과 분명히 나뉘어지는 소위 “개혁주의 독특성”이라는 데에서 그 의견을 같이 하고, 또한 17세기 신앙고백서의 성격상 당시의 많은 신학적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정도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였다.

박형룡박사에 관해서는 다량의 저술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박형룡저작전집」에 거의 정리가 되어있으며, 특히 기독론에 관하여는 제14권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성찬에 관하여는 제19권에 한 편의 설교가 있는 이외에 다른 저작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이들을 근거로 하였으며, 제4권 교의신학기독론이나 제6권 교의신학교회론은 L.Berkhof의 저작을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참고로만 하였다.

C. 전개과정

우선, Calvin의 성찬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Luther와 Zwingli의 성찬논쟁

의 배경을 살펴본 후 소위 개혁주의의 독특성 가운데 하나인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는 개념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조사하여, Calvin과의 연관을 찾는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성, 특히 신성에 있어서 독특함을 교부들과 Calvin을 통해 이해한 후,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성찬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즉 기독교론이 성찬론의 기본적 원리임을 알고 칼빈의 기독교론 이해가 어떠한지 칼빈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교부들의 신앙고백서들 중 Luther와 개혁주의간의 기독교론 이해의 중심에 있었던 칼케돈 신조의 내용을 살펴면서 다른 개혁과 신앙고백들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17세기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을 조명하여본다. 여기에는 칼케돈 신조, 제2스위스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들이 연구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박형룡박사의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박형룡박사의 신학원리를 살펴보고, 성찬론이 과연 박형룡박사의 신학 원리와 개혁주의 독특성의 이해 가운데에서 어떠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연구한다. 그리고 끝으로 박형룡박사의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 는 내용을 언급한 기독교론의 입장을 토대로 성찬론과의 연관성을 찾아서 비평하도록 하겠다.

II. Calvin의 성찬관

1. 성만찬 논쟁의 배경

1517년 독일의 Wittenberg에 붙여진 95개 조항은 당시에 교회의 유일한 권위로서 서있던 교황권에 대한 저항의 방식이었다¹⁾²⁾. 따라서 95개항의 대자보 자체가 대교황을 향한 논쟁서로서 하나의 저항의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김영규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³⁾.

교회와 세속의 권세들을 가진 모든 자들 앞에서 교황이나 공의회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던 원리들로서 인간을 배제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와 판명한 이성 혹은 양심의 근거에서 다음과 같이 거절하였다. Hier stehe ich. Ich kann nicht ander. Gott helfe mir. Amen.(나는 여기에 서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 아멘.) 여기에서 루터가 홀로 서 있었다.⁴⁾

1) 김영규, 「기독교강요강독 I」, (서울: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0), p. 7.

2) Amore et studio elucidande veritas : hec subscripta disputabu(n)tur ... Martino Lutther: Quare petit: ut qui non plunt verbis presentes nobiscum disceptare: agant id literis absentes. In no(m)i(n)e d(omi)ni nostri Hiesu Chr(ist)i Amen. 여기에서 진리를 밝히는 근거와 규범으로서 이성과 성경이 제 18조에 표현되어 있다: Nec p(ro)batu(m) vide(n)t ullis: aut r(ati)onibus aut scripturis. q(uod) sint extra statum meriti seu agende charitatis.

3) Ibid., pp7-8.

4) Solus primo eram et certe ad tantas res tractandas ineptissimus et indoctissimus, casu enim, non voluntate nec studio in has turbas incidi, Deum ipsum testor; me unum fuisse (ut supra dixi)ex illis, qui (ut Augustinus de se scribit) scribendo et docendo profecerint, non ex illis, qui de nihilo repente fiunt summi, cum nihil sint, neque operati, neque tentati, neque experti, sed ad unum intuitum scripturae totum spiritum eius exhaurint (*Luthers Werke in Auswahl* IV, hrg. von Otto Clemen, p.422) : Ibid., p.8.

이 때 선언된 선언서 안에 루터의 저항의 방식으로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개념이 공적으로 선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sola scriptura의 저항개념의 내용(오직 성경만 순수하고 배제적 설교, 모든 교리와 모든 삶의 유일하고 확실한 규범으로서 성경, 무오한 성경, 성경의 자체해석의 원리)이 제후들에 의해서 선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큰 의미가 있다⁵⁾.

그러나 이런 소중한 내용은 발견되자마자 변질되어버렸고, 결국 루터와 함께 있던 이들로부터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것은 1524년 루터와 함께 Wittenberg에서 가르치던 Carlstadt에 의해서였다. 그는 초기 재세례파에 속하는 인물로 교회의 규례들이 구원의 유효한 수단들이 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힘이나 그들의 집행하는 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을 믿음으로 받는 그들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잘 따르고 있었다.

Carlstadt는 루터가 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것은 구원이 오직 의식의 수행에 의해서(opus operatum) 온다는 카톨릭의 입장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루터가 13세기 John of Paris의 주장에 따라서 실재설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의 요소들 안에 실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계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개혁주의와 구별되게 성만찬에 주께서 영적으로 현재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신자의 부양을 위해서 유익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⁶⁾. 실제로 루터는 그의 성찬에 대한 입장에 대해 ‘그리스도의 몸이 편재하신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후에 언급하겠지만 Calvin과 같이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말하면서도 몸의 편재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Luther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교회 안에 상(images)들의 현존에 대해서 관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그 상들을 제거하기를 두려워하

5) Ibid., pp.8-9.

6) Ibid., pp. 9.

였다. 이것은 아직도 카톨릭주의처럼 신앙의 요소 중에 assensus(감정)를 강조하는 것이었다⁷⁾. 이것이야말로 Luther를 다른 개혁자들과 분리시키는 치명적인 한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방에 내가 숭배하지 않은 십자가를 잘 걸었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해가 될 수 있는가?’

이제, Luther가 종교개혁의 내용이나 원리를 언급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개혁주의의 그것과는 점점 더 멀어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스위스에서는 U. Zwingli가 종교개혁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루터가 알려지기 전인 1516년부터 이미 Wolfgang Capito(1478-1541)와 교제하면서 교황을 거절하였다. Zwingli는 루터와는 독립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그의 종교개혁 원리는 두 가지였다⁸⁾. 첫째로 성경의 유일무오한 권위를 강조하였고, 둘째로 성경의 참된 의미는 오직 자신의 빛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사실이었다.

이 두 학자의 입장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그것이 신앙적이었던 정치적이었던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제후들에게서 시작되었다. 특히 Marburg의 회의는 Hesse의 제후 Philip에 의해 주선되었으며, 거기에는 루터주의자였던 Melancton, Jonas, Cruciger와 Zwingli가 대표하는 개혁자들, 바젤의 Oecolampadius, Strassburg의 Bucer, Hedio, Nuremburg의 Osiander가 초대되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종교개혁원리들은 일치점을 보았으나, 원래의 의도였던 성만찬에 대한 조정은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더 이상 루터주의와

7) 이미 1517년 그의 95개 조항 첫 명제에서 후기 개신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인간론 혹은 인간의 회심이 중심이 되어 있다: ... penitentiam agite. ... omne(m) vitam fidelium penitentiam esse voluit. 그가 말하는 회심은 고해성사(penitentia sacramentali) 즉 사제에 의해 수행되는 고해와 보속의(confessionis et satisfactionis que sacerdotum ministerio celebratur) 회개는 아니지만, 자기자신에 대한 혐오(odium sui)를 진정한 내적인 회심(penitentia vera intus)이라 보고 있다. 문제는 이 회심의 성격이 일생동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회심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이 첫 종교개혁원리들을 강조하면 할수록, 개혁주의와 구별된 점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에 의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자신에 대한 혐오나 형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나 완전한 죄사함의 확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있다고 해도 극소수의 경우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 Ibid., p.9-10.

8) Ibid., p. 11.

개혁주의가 하나가 될 수 없는 반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529년 10월 2일에 열린 회의의 주 논쟁점은 Hoc est Meum corpus(이것이 나의 몸이다)에 대한 해석문제였다. 처음에는 Oecolampadius와 Luther 사이에, 그리고 곧 Zwingli와 Luther 사이의 논쟁이 되었다.

이들은 다같이 sola scriptura에 입각하여 성경을 해석하였지만, Luther는 문자적인 해석을 고집하였다⁹⁾: “나는 그 진리를 버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는다.” 그러나 Oecolampadius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육체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는다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24의 말씀이 요한복음 6:62, 63의 말씀과 모순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한 본문의 문자적 해석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유사 본문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 자체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원리를 따르는 것이었다.

이 논쟁과정에서 개혁주의의 독특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나오게 되었다¹⁰⁾. 즉 Augustinus와 Fulgentius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인성의 속성들을 취하였으나 참된 신성의 속성들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의 인성에 따르면 그가 땅에 있을 동안에 하늘에는 없었고 그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땅을 떠났으며, 신성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내려 왔을 때도 하늘에 남아 있었고 거기로 되돌아갔을 때도 땅을 버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바로 Calvin과 칼빈주의자에게 finita non recipiunt infinita(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는 개혁주의의 독특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9) Ibid., p. 12.

10) Loc. cit.

2.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finita non recipiunt infinita¹¹⁾, finitum non est capax infiniti¹²⁾)¹³⁾

기독론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의 통일적인 고백인 구약의 여호와에 대한 기독론적인 이해는 보존되어야 한다. Calvin에 따라 여호와 이름아래 그리스도의 현현(manifestatio)은 인정하되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육체(substantiale corpus)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루터주의 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이 신성과 인성의 실제적인 통일성으로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¹⁴⁾. 즉 신은 죽었다는 신학이 루터주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타나시우스의 신조와 칼케돈 신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루터주의와 칼빈주의 독특성(Extra illud Calvinisticum) 사이에는 약간의 충돌이 있다¹⁵⁾. 다시 말하면 루터주의는 두 본성의 실제적 통일성을 주장하되 육체 밖에 로고스가 없다(nec λόγος extra carnem)는 주장이지만¹⁶⁾, Zwingli 이래 개혁주의의 경우 그리스도의 신성(totus)이 인성 안에 거하는 인격적 통일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신성(totus)

11) Johanus Cavinus., *Opera quae supersunt omnia* X, ediderunt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Eduardus Reuss, Brunsvigae & Berolinae, 1863-1900(CO), p.138.

12)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II, J. H. Kok : Kampen, 1929, p.238.

13)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9), p.28..

14) CO XXVI, pp.463-464. 그러나 성자의 성육신이나 성령의 임하심들은 하나님의 실체와 동일한 의미에서 실체가 임하신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할 때, 종의 형체를 취하였다는 표현(assumptus homo)은 신성이 아니다. C. Olevianus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본성의 위격적 결합은 인간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위격의 통일성 안에서 인성을 입는 것(personalis unio, duarum naturarum in Christo est, assumptop non hominis, sed humanae naturae in unitatem personae aeterni ZFilii Dei)”이라고 하였고 따라서 두 본성의 속성들은 영원히 구별되어 남아있다(manent in aeternum suis proprietatibus distinctae)”고 하였다.

15) Heiko A. Oberman, Die “Extra” - Dimension in der Theologie Calvins, in: *Geist und Geschichte der Reformation*, Festgabe Hanns Rückert zum 65. Geburtstag, Berlin 1966, pp.323-356.

16) Chr. E. Luthartstag, *Compendium der Dogmatik*, bearbeitet von F. F. Winter, Leipzig, 1929, p.214: “nec λόγος extra carnem, nec caro extra λόγος; humana natura in Christo est capax divinae”. H. A. Oberman은 Luther의 이런 주장에 대한 신학적 동기는 제세례파에 대한 경계에 있었고 종교적 동기는 구원의 확신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cf. *op. cit.*, p.351.).

은 인성밖에 있다는 주장이다¹⁷⁾.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의 기독교론적인 전통에 있어서 구약의 그리스도와 성육신 된 그리스도 사이에는 난제가 있다. 그러나 그 난제¹⁸⁾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개혁주의 내의 다양한 노선과 관련하여 또렷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교회의 주장대로 신비적 사색에 의해서 인간이 신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나 카톨릭 교리인 덧붙여진 은사에 대한 교리 및 화체설과 Luther의 공재설은 유한이 무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¹⁹⁾, 최소한 이런 근본적인 사상적 뿌리로부터 개혁주의 신학은 자유로울 필요가 있었다. 분명히 이런 입장은 개혁주의의 독특성이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개혁주의의 보편성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런 입장에 대해서 개혁주의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되었거나 모두에 의해서 또렷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부들의 입장에 머물고 이런 방향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17) Qualiter a Paulo(1Cor.2) Dominus gloriae crucifixus dicitur, non quia secundum divinitatem sit passus, sed quia Christus, qui abiectus et contemptus in carne patiebatur, idem Deus erat et Dominus gloriae. Ad hunc modum et filius hominis in coelo erat, quia ipse idem Christus, qui secundum carnem hominis filius habitabat in terris, Deus erat in coelo. Qua ratione, eo ipso loco, descendisse dicitur secundum divinitatem; non quod divinitas coelum reliquerit, ut in ergastulum corporis se abderet, sed quia, tametsi omnia impleret, in ipsa tamen Chisti humanitate corporaliter, id est, naturaliter habitabat et ineffabili quodam modo(Col. 2) : CO., I, p.122.

18) 루터주의나 개혁주의나 칼케돈신경에서 고백된 대로 유티케(Eutyches)학파에 반대하여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두 본성은 서로 혼합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역시 네스토리우스(Nestorius)학파에 반대하여 두 본성이 서로 나누어지거나 분리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이와 관련해서 Zanchius는 분명히 한 의지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의지를 받아 드리지 않고 두 의지론을 받아 드리고 있다: "... ita ut quemadmodum divina suas retinens maneat creata, ... et sicut divina suam habet voluntatem et potentiam, qua Christu ut Deus vult et operatur, quae Dei sunt: sic humana suam, qua idem Christus ut homo vult et operatur, quae hominis sunt. ..." :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p.30.

19) H. Bavinck, p.235.

3. Calvin의 증언들

그렇다면 과연 Luther와 Zwingli의 논쟁과 관련해서 Calvin은 어떠한 입장에 섰으며, 개혁주의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는 개념이 Calvin에게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R. T. Kendall이 칼빈주의자들의 신학이 Calvin의 신학으로부터 이탈하였다²⁰⁾고 하였고, 심지어 일본 개혁주의 대학인 고베신학교의 마키다 요시카즈(牧田吉和)교수는 그의 최근 저서 「改革派信仰とは何か」(竹原; 聖惠授産所出版部, 1999)에서 “유한이 무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개혁과 신앙의 하나님중심주의 내용으로 잘 지적하면서도 “이러한 표현 자체는 직접적으로 Luther나 Calvin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고 17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 시대에 정식으로 사용된 표현이다”²¹⁾고 하면서 단순히 내용적이고 원형적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은 1536년 기독교강요 초판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4장 성례에 대하여(de Sacramentis)에서 성찬에 대한 언급 중에 이 같은 진술을 대하게 된다.

정말이지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바울이 말할 때(고전2:8), 그것은 그가 자신의 신성에 따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버림받고 멸시 당하고 육신으로 고통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요 영광의 주이셨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또한 하늘에 있는 인자였다(요3:13).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지상에서 인자로 거하셨던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신성을 따라 그 자리로 내려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신성이

20) R. T. Kendall,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to 1649*, 1976.

21) 마키다 요시카즈, 이종진 역, 「개혁과 신앙이란 무엇인가?」, (인천: 아벨서원), 2000, p. 89.

육신의 감옥에 자신을 감추기 위해 하늘을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셨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여전히 육신으로 거했기 때문이었다(골2:9). 즉 본성에 의해 그리고 어떤 취소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²²⁾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이 기독교강요 최종판의 제4권 17장 30절에 그대로 재인용²³⁾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Calvin의 성찬에 대한 이해의 기초적인 Idea이며 동시에 변하지 않는 그의 신학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Calvin은 이러한 내용이 스콜라학파의 것이었음을 언급하고 그것이 그들에 의해서 좀더 확고한 진리의 내용으로 여겨졌다면 다양한 오해들을 낳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콜라 학파의 상투적인 구별을 언급하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전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셨으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편제한 것이 아니다. 이 발언의 힘을 스콜라 학자들 자신이 정직하게 고려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그리스도의 육적인 임재라는 어리석은 공상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증보자는 전인으로서 편제하기 때문에 항상 그들과 더불어 있고 성만찬에 스스로 특별한

22) Qualiter a Paulo(1Cor.2) Dominus gloriae crucifixus dicitur, non quia secundum divinitatem sit passus, sed quia Christus, qui abiectus et contemptus in carne patiebatur, idem Deus erat et Dominus gloriae. Ad hunc modum et filius hominis in coelo erat, quia ipse idem Christus, qui secundum carnem hominis filius habitabat in terris, Deus erat in coelo. Qua ratione, eo ipso loco, descendisse dicitur secundum divinitatem; non quod divinitas coelum reliquerit, ut in ergastulum corporis se abderet, sed quia, tametsi omnia impleret, in ipsa tamen Chisti humanitate corporaliter, id est, naturaliter habitabat et ineffabili quodam modo(Col. 2) : CO., I, p.122.

23) CO., II, pp.1031-1032.

방식으로 현재할지라도, 그가 전인으로 거기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심판하러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스도 육신으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²⁴⁾

Calvin 자신이 밝힌대로 이러한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하는 개념은 스콜라학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위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Augustinus와 Fulgentinus의 입장과 통하는 것인데, 특히 Calvin은 Augustinus의 성찬에 대한 입장을 「기독교강요」 최종판 제4권 제17장 28절에 잘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 Augustinus의 증언을 인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이 거룩한 분(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신중하게 대답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살에 불멸성을 부여하셨으나 그 본성은 제거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살이 살의 형태로 각처에 편만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람(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할 때, 그의 몸의 실재성을 제거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반드시 각처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²⁵⁾

24) *Trita est in scholis distinctio,quam me referre non pudet: quamvis totus Christus ubique sit, non tamen totum quod in eo est,ubique esse. Atque utinam Scholastici ipsi vim huius sententiae probe expendissent; quia ita occursum fuisset insulso commento de carnali Christi praesenita. Mediator ergo noster quum totus ubique sit, suis semper adest; et in coena speciali modo praesentem se exhibet, sic tamen ut totus adsit, non totum: quia, ut dictum est, in carne coelo comprehenditur donec iudicium appareat. : CO., II, p.1032.*

25) *quia de Christi carne mota erat quaestio, et sanctus vir ex professo respondens, immortalitatem, inquit, carni suae dedit Christus, naturam non abstulit; secundum hanc formam non putandus est ubique diffusus: cavendum enim ne ita divinitatem astruamus hominis, ut veritatem corporis auferamus; non est autem consequens ut, quod in Deo est, sit ubique ut Deus. : CO., II, pp.1027-1028.*

또 이어서 어거스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이며 둘이 다 한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지라는 사실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며, 사람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하늘에 계신다²⁶⁾” .

이것은 이미 어거스틴에게서 전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은 하늘에만 계시지만 신성은 전그리스도 안에, 또한 그밖에 계신다는 내용이 잘 드러나는 것이며, 나아가 예수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던 신성과 인성 중 신성은 그 안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밖에 계셨다는 그야말로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 는 정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을 발견한 Calvin 또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곳에서 어거스틴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신비한 연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위엄의 임재에 관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살의 임재에 관해서는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²⁷⁾고 하신 말씀이 옳다²⁸⁾” .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계시는 방식에 대해 단순히 성찬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기독교의 원리이면서 나아가 기본적인 원리로서 전그리스도(*totus christus*)를 이해하고 있고,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하는 개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4.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는 명제에서 우리는 유한한 육체, 즉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해서 어디에나 함께 편재하신다는 Luther의 입장을 받을

26) *una enim persona Deus et homo est, et utrumque unus Christus; ubique per id quod est Deus, in coelo per id quod est homo.* : CO., II, p.1028.

27) 마 26:11.

28) *secundum praesentiam maiestatis nos semper habere Christum; secundum praesentiam carnis recte dictum esse: me non semper habebitis.* : Loc. cit.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전그리스도(totus Christus)를 이루는 신성은 무한으로서 육체 안에 갇힐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된다. 그렇다면 Calvin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그것이 영적인 임재에 불과하다면 Calvin의 성찬관이 Zwingli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단지 영적인 의미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 되므로 합당치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택자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몸과 같다는 고백을 통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만일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은 의미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 Calvin은 일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실 뜻을 품으셨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행하셨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죄가 없다는 점을 빼놓고는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들과 똑같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우리 육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정된 차원을 갖고있고 한 장소에 국한되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동일한 육체가 다양한 장소를 차지하고, 어느 장소에도 국한되지 않고, 그로써 부피와 형상을 갖지 않도록 만드실 수 없겠는가? 미친 자여, 왜 하나님께 육체를 만드시되 육체인 동시에 육체가 아니게끔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가?²⁹⁾

29) Non enim hic quaeritur quid Deus potuerit, sed quid voluerit. Affirmamus autem id factum esse quod illi placitum erat. Placuit autem, Christum fratribus per omnia similem fieri, excepto peccato. Qualis est nostra caro? nonne quae certa sua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아울러 인성과의 연합, 즉 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활 후 승천하신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육체와의 물리적 연합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편재하시지만 인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Calvin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성례의 의미와 본체의 효과를 「기독교강요」 제4권 제17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진상의 성격을 잘 아는 말로 설명하고자 할 때에 나는 대개 세 가지 것을 지적한다. 즉 의미와 의미에 의존하는 본체와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 힘 또는 효과의 세 가지다. 의미는 언약에 포함되었으며 약속은 이를테면 표징에 내포되어있다. 본체 또는 실체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효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속과 의와 성화와 영생과 그 밖의 모든 은혜들이다.³⁰⁾

필립 홀트롭은 Calvin의 언급한 세 가지 즉, 의미와 본체 혹은 실체, 효과가 각각 언약,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며, 이것을 삼단논법으로 이해한다³¹⁾. 그의 삼단논법에 의하면, 대전제로 우리는 성찬

dimensione constat, quae loco continetur, quae tangitur, quae videtur? Et cur, inquit, non faciat Deus ut caro eadem plura diversaque loca occupet, ut nullo loco contineatur, ut modo et specie careat? Insane, quid a Dei potentia postulas ut carnem faciat simul esse et non esse carnem? : CO., II, p. 1023.

30) Ea qualis sit dum familiariter demonstrare volo, tria soleo ponere: significationem, materiam quae ex ea dependet, virtutem seu effectum qui ex utraque consequitur. Significatio in promissionibus est sita, quodammodo sunt signo implicitae. Materiam aut substantiam voco Christum cum sua morte et resurrectione. Per effectum autem, redemptionem, iustitiam, sanctificationem, vitamque aeternam, et quaecumque alia nobis beneficia affert Christus, intelligo. : CO., II, p. 1010.

에서 그리스도 자신과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유익들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전제로 우리는 성찬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유익들을 받는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찬에서 실제로 그리스도 자신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논법에 맞추어 Calvin의 증거들을 재구성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는 지역에 국한을 받는 육체라는 점을 포함하여 모든 점에서(다만 죄가 없으시다는 점만 빼놓고는) 우리와 같으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반면에, 그 육체는 하늘에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와 사귄을 가지려면 어떤 ‘띠’가 필요하다.³²⁾

홀트롭의 이해대로라면 우리는 계시에 의존하여 말씀을 근거로 성찬을 볼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논리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 성찬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그는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는 “띠”를 요구하게 되고, 논리적 배경을 가지고 접근하여, 계시자의 의지대로 흘러나오는 언약의 내용, 즉 그리스도와 구원의 서정의 어떤 관계의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심지어 홀트롭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경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세위격을 가지시는 통일적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곳에 성령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내용을 논리적 흐름 속에 가두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삼위일체의 통일적 경륜의 내용에 대해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31) 필립 홀트롭, 「기독교강요 연구 핸드북」, 박희석·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p. 363.

32) Ibid..

첫째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요 동일한 실체에 속하기 때문에,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이 역사하신다.³³⁾

둘째로 그렇게 그 실체에 있어서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시되, 성부, 성자와 성령은 시간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 없이 모든 피조물들 위에 그 자체로 있고 동시에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요 동일하게 존재한다.³⁴⁾

셋째로 그와 같이 삼위일체는 동시에 역사되지만, 이들이 각각 위격들과 관계할 때, 성부의 소리, 성자의 몸, 성령의 비둘기라고 한다. 그와 유사하게 그 자체로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가 볼 수 있는 피조물의 형체를 통해서 분리되어 계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⁵⁾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의 경우에도, 다만 시대에 대응한 자신의 경륜에 따라 구별될 뿐이라고 하였다.³⁶⁾

결론적으로 각각 고유하게 성부, 혹은 성자, 혹은 성령과 관계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할 수 없는 역사가 있다.³⁷⁾

33) Patrem et Filium et Spiritum sanctum unius ejusdemque substantiae, Deum creatorem, Trinitatem omnipotentem inseparabiliter operari, : Augustinus, *De Trinitate*,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vol. L, Turnholti, 1970, IV, 21, 30.

34) In qua quippe substantia qua sunt, tria unum sunt, Pater et Filius et Spiritus sanctus, nullo temporali motu super omnem creaturam idipsum sine ullis intervallis temporum vel locorum, et simul unum atque idem ab aeternitate in aeternitatem, ... : Loc. cit.

35) ita Trinitas simul operata est et vocem Patris, et carnem Filii, et columbam Spritus sancti, cum ad personas singulas singula haec referantur. Qua similitudine utquaque cognoscitur inseparabilem in se ipsa Trinitatem per visibilis creaturae speciem separabiliter demonstrari, ... : Loc. cit.

36) Proinde illa omnia quae Patribus visa sunt, cum Deus illis secundum suam dispensationem temporibus congruam praesentaretur, per creaturam facta ess manifestum est, ... Cum dispensatio Nov. Testamenti a dispensatione Veteris Testamenti secundum congruentiam saeculorum ac temporum distingueretur ... : Ibid., III, 11, 22.

37) ... et inseparabilem Trinitatis operationem etiam in singulis esse rebus, quae vel ad

또한 이런 내용은 Calvin의 언약의 통일성 뒤에 깔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Calvin의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이 정통 개혁주의 안에서 계속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현저히 고백되고 있다³⁸⁾.

따라서 우리는 홀트롭과 같은 논리적 이해를 거절하고,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을 받는다. 그것은 성찬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임재하는지, 그것이 편재의 방식인지 등에 대한 논증적 내용보다는 Calvin은 표징으로 주시는 성찬을 통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구속과 의와 성화와 영생과 그 밖의 은혜들을 허락하시사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루터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의 신성의 속성들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신성과 함께 인성도 편재, 전능, 전지와 같은 속성들을 가지셨다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Luther는 이렇게 말한다.

..... 그러므로 이 두 본성은 서로 밀착되어 있고 짜여져 있으며 하나와 같다.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와 뗄 수 없다. 마치 낱고 고난 받고 죽는 것 등이 이 연합된 마음으로 알려진 인간 예수 가운데서 신성이 동참한 인간성의 특징과 속성들인 것처럼 그것들은 나눌 수 없고 풀어 놓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 뿐 아니라 역시 신도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다 마치 고난과 죽음이 정당하게 인간의 죽고 말 본성과 모양과 속성에 속하며 또한 그 일부인 것처럼

Patrem, vel ad Filium, vel ad Spiritum sanctum demonstrandum proprie pertinere dicuntur : Ibid, IV, 21, 30.

38)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pp. 26-27.

럼 그(베드로)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바로 첨가한다(마18).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죽은 것이다. Gregory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만일 무덤 가운데 있는 죽은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하다. 그것은 그가 무덤 가운데 있는 죽은 그리스도에게 기도한다면 그는 역시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는 인간만이 아니시고 하나님도 되신다.’³⁹⁾

이런 Luther과의 기독교론에 이해는 그 성찬론이 예수께서 신체적으로 떡에 현존한다는 자신들의 공재설에 근본적으로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신적 속성은 예수의 인간성으로 전달되는 빵과 포도주의 각 요소 “안에, 그와 함께, 그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신체적으로 현존” 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 오, 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떡과 밀알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창조의 교리를 더욱 믿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훨씬 더 용이한 일이며(창조나 삼위일체교리보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렇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에서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훨씬 용이한 일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그렇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⁴⁰⁾

39) Martin Luther, *"Tischreden: Colloquia"* in D. Martin Luthers Werke (Weimar Ausgabe=WA), 1910, Bd. 6. 6600.

40) WA 5, 5661.

Luther의 이러한 주장은 Marburg 회의에서 Zwingli와의 논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Luther는 “Hoc est corpus meum(이것은 내 몸이라; 고전 11:24)”의 문자적인 이해를 강조한 반면, Zwingli는 요한복음 6장 (Iohannis 6. capit.)을 근거로 변론하였다⁴¹⁾.

Marburg 회의에서 대부분의 신학은 합의를 보았으나 마지막 14항 “성찬에 대하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개혁파는 개혁파 나름대로 독특성을 세운 반면에 Luther는 자신의 주장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 떡 안에 현존하시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성찬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데 따라 두 가지 다(떡과 잔) 사용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모두 믿는다. 미사는 죽은 자나 산 자를 위하여 사죄를 받는 행사는 결코 아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몸과 참 피의 성례이다. 이 몸과 피의 영적 참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례의 용도에 관해서도 우리는 동의한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같이 성찬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성령이 신앙과 사랑 가운데로 옮긴다. 그리스도의 참 살과 피가 떡과 잔 가운데 실제로 현존하는지 안하는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들이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양심이 허락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참된 교리 가운데 우리들을 굳게 세워 주시기를 우리들 양편은 다 같이 진정으로 간구하는 바이다. 아멘.⁴²⁾

41) WA 30. 3. pp.110-144.

42) Marburg 회의의 열 네 번째 합의문 “Vom Sacrament des leibs und blunts Christi”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들은 전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Zum sunssgehenden Gleuben und halten wir alle von dem nachtmal(BI.U5) unfers lieben Herrn Ihesu Christi, das man bende gestalt nach der einsegung Christi brauchen sol, Das auch die Messe nicht ein merck ist, da mit einer dem andern tod odder lebendig gnad erlange, Das auch das Sacrament des altars seh ein Sacrament des waren leibs

이러한 논쟁 이후에 개혁교회의 성찬이해의 위에서 개혁파는 고대 신조인 칼케톤 신조에서 확립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제시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지만 그의 신성은 계속해서 참되고 진정한 신성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거나 혼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서 연합한다고 제시했다.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인성은 신성으로 변화하거나 신성과 혼합되지 않고 인성은 언제나 인성으로 남아 있음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성은 언제나 신성으로 남아 있음을 함께 제시했다. 즉 창조자와 피조물의 그 근본적인 구별은 성육신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인격적으로 연합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신성은 인성의 밖에서도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존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만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체적으로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들려 올려져⁴³⁾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실제적인 연합을 할 수

und bluts Ihesu Christi und die geistlichen niessung des selbigen leibs und bluts einem yden Christen sürnemelich von nöten, Des gleichen der brauch des Secraments wie die wort von Gott dem almechtigen gegeben und geordenet sein, da mit die schwachen gewissen zum glauben zubewegen durch den Heiligen geist, Und wie wol aber wir uns, ob der ware leib und blut Christi leiblich ym brod und wein sey, dieser zeit nicht vergleicht haben, So sol doch ein teyl gegen dem andern christiliche liebe, so fern ydes gewissen ymmer leiden kan, erzeigen, und beyde teyl Gott den almechtigen vleissig bitten, das er uns durch seinen geist den rechten verstand bestetigen wölle, Amen.” : WA 30. 3. pp.169-170.

43) 이 내용은 칼빈주의에 성만찬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 Calvi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주께서 떡을 떼는 것으로 그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참으로 표현하신다면, 그가 참으로 그의 몸을 제시하며 보이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다. 경건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주께서 정하신 상징을 볼 때마다 참으로 거기에 상징된 본체가 있다고 생각하며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 손에 그의 몸의 상징을 쥐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그 몸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몸의 상징을 받았을 때 그 몸 자체도 받았다는 것을 똑같이 확신해야 한다” : CO II, p. 1009-1010.

“그러나 만일 우리가 눈과 마음을 가진 채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 속에서 그를 찾는다면, 상징들이 완전하신 그에게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떡이라는 상징 하에 그의 몸을 먹게 되며 포도주라는 상징 하에 그의 피를 따로 마시

있도록⁴⁴⁾ 인도하시는 “신비적인 연합” 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게 되어 결국에는 그를 완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CO II, p. 1015-1016.

44) 성만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실제로 연합한다는 신학적 사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로마 카톨릭이나 Luther파가 성만찬에 있어서 인성이 떡과 포도주에 실제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혁신학은 떡과 포도주에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결합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참고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제76문과 79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II. 신앙고백서의 성찬고백

1. 칼케돈신조

칼케돈신조는 451년 칼케돈에서 회집되었던 제4차 세계종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회의의 특징은 지상에 임재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로고스에 대한 교리를 세웠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Nestorius와 Eutychus의 오류를 배격하고 있다.

따라서 칼케돈신조의 주된 관심은 기독교론,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Philip Schaff는 칼케돈신조의 중요한 기독교론을 일곱가지로 정리하고 있다⁴⁵⁾.

첫째, 로고스의 진정한 성육신, 혹은 하나님의 제2위. 둘째, 성(nature)과 위(person)의 엄격한 구분. 셋째, 성육신의 결과로서의 신인(God-Man). 넷째, 성의 이중성(duality). 다섯째, 위의 통일성(unity). 여섯째, 그리스도의 전 사역은 그의 인격으로 돌려지고 어느 한 성품에만 배타적으로 돌려지지 않는다. 일곱째, 그리스도의 인성의 비인격성(the Anhypostasia, Impersonality, or the Enhypostasia).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의 관계에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We also teach that we apprehend this one and only Christ-Son, Lord, only-begotten -- in two natures; and we do this without confusing the two natures, without transmuting one nature into the other, without dividing them into two separate categories, without contrasting them according to area or function. The distinctiveness of

45)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I*, Baker, Michigan, 1998, pp.29-34.

each nature is not nullified by the union. Instead, the "properties" of each nature are conserved and both natures concur in one "person" and in one reality {hypostasis}. They are not divided or cut into two persons, but are together the one and only and only-begotten Word {Logos}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Thus have the prophets of old testified; thus the Lord Jesus Christ himself taught us; thus the Symbol of Fathers {the Nicene Creed} has handed down to us.⁴⁶⁾

칼케돈신조의 탁월성은 그리스도 안에 상반되는 Deus homo, homo Deus의 양성을 매우 기교 있고 지혜롭게 연합함과 동시에, 성품의 구분을 올바르게 시도하면서 인격의 통일을 추구하였다고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uther와 개혁파의 입장 차이는 칼케돈신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갈라지는데, “양성은 갈라지거나 두 품성으로 분리될 수 없고...” 에서 Luther는 완전한 일치론을 주장하여 신성과 인성이 분명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였던 반면, 개혁파는 “각성이 보존되어” 일치를 이루므로 신성이 인성 안에 갇히는 것은 오해로 보고,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는 독특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었다.

2. 제2스위스 신앙고백⁴⁷⁾

46) 헬라어 원문은 Philip Schaff의 *The Creeds of Christendom* (Baker, Michigan, 1998.)의 제 2권 p.62에서 p.63을 보라.

47)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는 Zwingli의 제자였던 블링거(Henry Bullinger)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그는 스스로 이 신앙고백에 따라서 살고,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1562년 라틴어로 초본이 작성되었는데 그 자신이 완성하지 못하고 죽기 얼마 전에 이 고백서에 전적으로 동의했던 순교자 피터(Peter Martyr)에게 고백서의 초안을 보여주고 자신이 죽으면 이것을 잘 다듬어서 취리히 시장에 보내

본 신앙고백의 가장 뚜렷한 특색은 교회와 목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자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 구조도 보면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6장까지는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17-30장까지는 교회와 성례 등 실제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⁴⁸⁾. 또한 교회 안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 신앙고백서는 신앙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 중에서 이단 사상에 대한 정립과 교회를 그런 사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듯이 이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즉 매 장들마다 개혁신학의 입장을 정리해 주고 난 후에 이런 정통적인 신앙과 반대되는 형태의 신학분과가 무엇이며 또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적인 오류의 신학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신앙고백서를 신학적인 면에서 개혁교회의 신조들 중 으뜸을 차지한다는 평가는 당연한 것이다⁴⁹⁾.

성만찬과 관계해서 개혁교회의 입장이 “제21장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잘 드러나 있다. 우선 이것은 다시 몇 개의 절로 나뉘어 있는데, ‘표징과 표징의 대상’, ‘주님을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시키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 ‘영적 음식’,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먹음’, ‘주님을 성례전으로 먹는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성만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로 나뉘어 있다. 이중에 특히 마지막 절인 ‘성만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보면 Luther파의 입장을 경계하며, 개혁교회의 독특한 신학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만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

주기를 부탁하면서 공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48)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서울: 성광문화사, 1994), p. 148.

49)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I*, p.395.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에 긴밀히 연결시킨 나머지 떡 자체가 성례전적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고 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이 물질적으로 떡 속에 숨겨져 있으므로 떡의 형태로 그것이 예배되어야 한다거나 이 성찬의 표징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 대상 혹은 내용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므로 우리의 마음은 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을 향하여 올려져야 하고 주님은 결코 떡 속에 갇혀진 체 예배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교회가 성만찬을 베풀 때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로부터 부재하는(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은 우리를 떠나 있으나 우리들 속에 효과적으로 임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계신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그의 몸으로는 우리를 떠나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생명 주시는 역사에 의하여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주님은 그의 최후의 만찬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성만찬을 받는 것이 아니요, 동시에 교부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피흘림이 없는 신비적 성만찬을 받는 것이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서 보듯이, 개혁파는 떡 자체를 몸이라고 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이 떡 안에 함께 Luther파와 같이 공재한다고 말하여 형체를 가진 떡 자체에 영광을 돌리거나 표징을 받은 자들이 필연적으로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 자체까지도 받게된다고 말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떡과 잔에다 일치시키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승천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막16:19; 히8:1; 12:2). 따라서

Luther파의 성례는 성례 자체에 마음이 모아져 있고, 개혁파의 성례는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독일 지역에서 만들어진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이다. 독일은 이미 Luther에 의해서 종교개혁신앙을 받아 들였던 지역으로서 활발하게 종교개혁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1540년을 접어들면서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것은 1546년 프레데릭 2세에 의해서 좀더 바른 신앙의 모습을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6세기의 정치적 혼란으로 하이델베르그에 칼빈주의 자들이 속속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하이델베르그에는 Luther파와 Calvin파와 Zwingli파가 혼합되어 발전되는 양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공재설"에 대한 입장 표명에 따라서 각 분파가 심하게 충돌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프레드릭 3세(Frederick III)였던 것이다. 그는 각 교파를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칼빈주의 신학정신에 많은 호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신학적인 혼란을 제거하고 또한 후손들의 건전한 종교교육에 건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신앙교육서를 제정하고자 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처럼 독일의 선제후인프레드릭 3세(Frederick III)의 명령에 의하여,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인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와 궁정 설교자인 올리비아누스(Caspar Olevianus)에게 본 요리문답을 작성하도록 제시했던 것이다⁵⁰⁾.

50) Ibid., pp. 529-534.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Extra Calvinisticum"는 개혁신앙에 있어서 개혁과 신학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개혁신학의 독특한 이해이다. 먼저 본 요리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문이 제시되고 있다⁵¹⁾.

47: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지금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48: 만일 신성이 있는 모든 곳에 인성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불가해하고 어디에나 현존하기 때문에, 그 취한 인성 외부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어서도 인격적으로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성찬에 관계된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 기독론에 대한 문답이다. 그러나 65문에서부터 82문 사이에는 개혁주의의 독특성이 감추어져 있고 오히려 우리는 성찬의 본 의미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47문을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답을 하고 있다.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인테, 그 앞에 위치한 수식어를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다. 그 하나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그의 영으로...” 이다.

51) Zacharias Ursinus, Heidelberg Catechism, trans. G.W. Williard, WM. B. Eerdmans Publishing, michigan, 1954, pp.247-251.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었다는 것인가? 그래서 48문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존하시기 때문에...”, “인성 외부에 있을지라도,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른 입장과는 구별되는 개혁주의의 독특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Calvin에게서도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계셨으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편재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증보자는 전인으로서 편재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들과 더불어 있고 성만찬에 스스로 특별한 방식으로 현재할지라도, 그가 전인으로서 거기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⁵²⁾

이것은 루터주의가 "공재설"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의미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자체를 곡해하는 위험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배격한 개혁신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루터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의 신성의 속성들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인간성이 편재, 전능, 전지와 같은 속성들을 가지셨다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52) “Quavis totus Christus ubique sit, non tamen quod in eo est, ubique esse”.

“Mediator ergo noster quum totus ubique sit, suis semper adest: et in Coena speciali modo praesentem se exhibet, sic tamen ut totus adsit, non totum” : E. David Willis,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The Function of the So-Called Extra-Calvinisticum in Calvin's Theology*, Leiden : E.J. Brill 1966, p.26ff. : 김영규, 「기독교강요강독」, pp.12-13.

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본 신앙고백서는 개혁주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Calvin의 신학적 사상을 거의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밀한 칼빈주의적 성격의 신앙고백서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개혁주의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최후의 신앙고백이라는 것과 그 신학적 입장도 16-17세기를 이어 철저하게 각 교리에 있어서 개혁주의적 독특성을 잘 정리하고 있기에 본 고백서는 개혁주의의 신앙고백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⁵³⁾.

그러나 본 신앙고백서의 기본적 사상은 정확한 성경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본 신앙고백서들의 각각의 조항들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한 시대에 자리잡았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그 성경적 입장이 개혁주의의 독특한 성격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개혁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즉 17세기의 역사적인 상황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가장 철저하게 바른 성경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고백했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종교적 배경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가교회 내지 민족교회가 형성되었다. 영국은 왕조가 종교의 방향을 좌우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즉 헨리 8세, 에드워드6세, 메리여왕, 엘리자베스1세, 제임스1세, 찰스1세등 왕조의 변화에 따라서 개신교와 카톨릭의 세력이 좌우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대륙에서 돌아온 개혁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청교도(Puritanism)역사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퓨리탄은 영국 국교의 카톨릭적 요소,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교역자의 부도덕과 기성 영국 교회의 도덕적 이완과 잘못된 교리에 저항할 뿐만 아니

5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큰 특징은 Dort신조의 핵심적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p. 50.

라 순수한 개혁교회적 교회 정치와 정.교분리원칙 및 보다 순수한 Calvin 신학을 수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⁵⁴⁾.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본 신앙고백서는 작성되었으며,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그 목적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형성하려고 신앙고백서 작성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특별히 당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아르미니우스적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바른 성경적 입장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⁵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왕조와 분리된 의회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신학자 총회를 소집하여 영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의식, 권징, 정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완전한 개혁을 단행하여 가까이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나 대륙의 개혁 교회와 일치케 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작성되었다⁵⁶⁾. 참석자들은 151명으로 30명의 평신도 사정관과

54) 이형기,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p. 301.

55) 아르미니우스 사상은 도르트회의 이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A.A. Hodge는 당시의 왕실파가 Calvin 사상을 버리고 이 사상을 받아들였으며, 또한 당 시대의 주 세력으로 등장한 카톨릭의 신앙표준서들의 신학적 입장을 아르미니우스 사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A.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the Banner of Truth Trust, Pennsylvania*, 1992, pp. 8-17.

56)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643. 6. 12. 회의소집법령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됨.

1643. 7. 1. 회의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모임

1643. 9. 25. 의회와 회의가 정식으로 "엄숙한 동맹과 계약"(Solemn League and Covenant)에 서명함.

1644. 8. 20. 신앙고백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임명됨.

1644. 12. 11. 회의가 교회정치양식의 최종자료를 의회에 보냄

1645. 1.4. 의회가 공예배를 위한 지침서(Directory of Public Worship)를 인정함

1646. 12. 4. 신앙고백서가 완성되어 의회에 제출됨

1647. 4. 29. 신앙고백서의 성경인증이 의회에 제출됨.

1647. 8. 27. 신앙고백서가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에서 인정받음

1647. 10. 22. 대요리문답서가 의회에 제출됨

1647. 11. 25. 소요리문답서가 의회에 제출됨

1648. 4. 14. 요리문답서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됨

1649. 1. 30. 찰스 1세가 처형당함. 1649. 2. 22. 회의의 최종적인 공식집회.

1652. 3. 25. 회의가 해산됨

: J. L. Carson/ D. W. Hall [eds], *To Glorify and Enjoy God. A Commemoration of the 350th Anniversary of the Westminster Assembly, Banner of Truth, Edinburgh*, 1994, vii.

121명의 목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이 장로교⁵⁷⁾ 소속을 갖고 있었다. 이 외에 감독교회파⁵⁸⁾와 독립교회파⁵⁹⁾와 에라스티안파⁶⁰⁾등이 있었다⁶¹⁾.

성찬에 대해 다루고 있는 29장은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개혁주의의 다른 신앙고백들과 신학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1, 7, 8항의 경우 아일랜드신조(1615)와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제29장에서 다루어진 성찬론은 칼빈주의적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 사상은 대륙이나 영국 또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았다. 영국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았다. 영국 감독교회 소속의 Marsden과 같은 학자들은 “성례관에서 영국교회의 사상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57) 장로교회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성직자의 동등성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계급적제도를 주장한다. 지교회는 서로 결합되어 있고, 노회에 종속되면, 노회는 국가적인 총회에 종속된다(1646판). 여기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었다. 하나는 장로교회제도는 하나님의 권리에 의하여 신약성경에 제시된 유일한 제도라는 의견이며, 하나는 장로교회제도는 단지 신약이 가르치는 교회의 원리들에 가장 잘 일치하는 제도라는 의견이다. 여기에는 William Gouge, Twisse, Gataker, Palmer, Temple, Matthew, Newcomen 등이 속해있다. 또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특출난 대표자들도 포함된다. 본래 Alexander Henderson, Robert Douglas, Samuel Rutherford, George Gillespie, Robert Baillie 등 다섯 명이었으나 Robert Douglas는 회의에 불참하였다. : 조병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박윤선 박사”, 「개성연 연구자료」, 개혁주의성경연구소, 1998, p. 4.

58) 이 파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아일랜드의 대주교 James Ussher의 입장을 따라, 감독의 기능을 신약의 교훈하고 설교하는 목사보다는 세속 군주처럼 이해하였다.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실제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직 두명이 참석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Brownrigg, Westfield, Prideaux, Dr. Featley, : Ibid., p.4.

59) 회중교회파라고도 하며 이 그룹은 지교회가 자율성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물론 이들은 교회들간에 연합과 국가와의 연합을 주장하였다. 특별히 이 그룹에서 활동적이었던 인물들은 소위 “다섯 반대 형제들”이라고 불리우는 Thomas Goodwin, Philip Nye, Sidrach Simpson, Jeremiah Burroughs, William Bridge였다. 그 외에 Carter, Caryl, Phillips, Sterry 등이 있다. : Ibid., p.4.

60) 이 그룹은 스위스의 의사이며 신학자인 Thomas Erastus(1524-83)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교회치리는 오직 국가의 승인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교회행정은 국가정치에 손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들은 소그룹이었지만 의회의 많은 에라스티안주의자들에게서 지지를 받았다. Lightfoot, Coleman, Selden. : Ibid., p.4.

61)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William Twisse, Charles Herle, Jhon White, Arrowsmith, Tuckney, Edmund Calamy, Joseph Caryle, Thomas Coleman, Thomas Gataker, Thomas Goodwin, Philip Nye, Joshua Hoyle, John Lightfoot, Stephen Marshall, Herbert Palmer, Edward Reynolds, Francis, Lazarus Seaman, John Selden, Richard Vines, Thomas Young. : Philip Schaff, pp. 740-745.

라고 말하고 있다.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소속의 Dr. Mitchell은 말하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르치고 있는 성찬론은 영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고 영국 사람들과 함께 대륙에 피난을 가 있으면서 대륙적 사교방식에 철저히 사로잡혔던 Knox뿐만 아니라 Cranmer, Latimer, Ridley, Hooker, Ussher 등이 가르치던 사상 그대로였다” 고 했다. 이 사상은 스위스의 초기 개혁자들의 주장이나 Luther의 공재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나 영국계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던 화체설과 매우 차이가 있었다. 이 사상은 매우 영적이면서도 만족스러운 것이어서 일부 고교회 지도자들(High Church men)까지도 이보다 더 좋은 성찬관을 제기할 수 없었으리라는 생각을 가졌었다⁶²⁾.

제5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그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린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린다⁶³⁾. 그렇다 해도 그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떡과 포도주로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⁶⁴⁾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던 Marburg 회의의 내용을 연상케 한다. 즉 Luther의 주장에 따라 “Hoc est corpus meum(이것은 내 몸이라; 고전 11:24)”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이 6항에 따라온다.

6. 신부가 축사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

62) Ibid., pp.775-776.

63) 마26:26-28.

64) 고전11:26-28; 마26:29.

(일반적으로 '화체설'이라고 불린다.)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요, 여러 가지의 미신과 조작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⁶⁵⁾

개혁교회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실제적 임재를 고백하고 있지만 카톨릭과 같은 방식으로 “실체로” 바뀌는 방식도 아니고, Luther파와 같이 완전히 하나의 물질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있다. 7항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7.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의 가견적 요소를 외형적으로 받을 때에⁶⁶⁾ 또한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루터교의 공재설). 그렇지만 그 가견적 요소들을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⁶⁷⁾

개혁교회는 절대로 카톨릭적이지도, Luther파적이지도 않다. 실재적이지만 실체로의 변화도 아니고, 물질적인 현재, 혹은 편재의 형태도 아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육체와 신성은 하늘에 계시지만, 삼위일체의 통일적 경

65) 행3:21; 고전11:24-26; 눅24:6,39.

66) 고전11:28.

67) 고전10:16.

룬에 따라,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신성이 실제로 임재하는 독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Luther파에서 말하는 성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자들에 대해 포용적이지 않고 바울의 언급을 따라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고 못박고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합함으로 주의 상(床)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거나⁶⁸⁾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는⁶⁹⁾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받드시 짓게 되는 것이다.

68) 고전11:27-29; 고후6:14-16.

69) 고전5:6,7,13; 살후3:6,14,15; 마7:6.

IV. 죽산 박형룡박사의 성찬론

1. 박형룡신학의 원리⁷⁰⁾

박형룡박사의 조직신학은 자신이 밝힌 대로 대부분 L. Berkhof의 조직신학 저작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 서론을 제외하고는 각론의 모든 부분을 약간의 소제목을 첨가한 것 외에는 Berkhof의 「Systematic Theology」(1941)을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신학의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론에 한정되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 자신의 저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서론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첫째로, 박형룡박사는 어떤 의도로 자신의 전집에 자신의 글이 아닌 번역서를 그대로 싣게 되었는가이다. 여기에 대해 차영배교수의 글에서 박형룡박사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이 책은 다른 사람들의 화원에서 꺾어 모은 꽃다발도 되지 못한다. 한 사람의 화원에 다른 사람들의 꽃 여러 폭을 옮겨 심어 놓은 셈이다. 그래서 이 책은 필자의 편술이라고 표지에 밝히려 하였으나, 조역하는 이들의 권면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술이라고 매겨둔다.”⁷¹⁾ 또 이어서 인용하고 있다. “남의 재료를 모아서 편술이나 할 정도라면 당초에 붓을 잡지 않는 것이 좋았으리라”⁷²⁾고 한다.

둘째로, 그렇다면 신론, 인죄론, 기독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은 Berkhof의 「Systematic Theology」(1941)을 번역하였으면서, 어째서 서론은 전혀 다른 저술방식을 택하였는가이다. 여기에 박형룡박사의 신학원리

70) “박형룡신학의 원리”는 이미 차영배교수에 의해서 다루어졌었으며, 그 연구의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져서 같은 제목으로 다루었다. 많은 부분 차영배교수의 연구 업적에 의존하였음을 밝힌다. : 차영배, “박형룡신학의 원리”, 「신학지남」, 신학지남사, 1984.

71) Ibid, p.89.

72) Ibid, p.90.

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에서 서론의 위치가 단순히 각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론의 방향을 잡아서 신학적 입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므로, 각론이 같다고 하더라도 서론이 다르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형룡박사의 서론이 단순히 번역에 지나지 않고, 자신의 저술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Berkhof와는 구별짓는 입장이 있어서였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 Berkhof의 신학은 잘 알려진 대로 화란의 Hermann Bavinck의 신학을 잇는 개혁주의신학의 현대적 저술이다. 따라서 많은 부분 Bavinck의 신학적 방법을 따랐으며, 그것은 17세기의 정통주의 신학의 방법이며, 나아가 Calvin의 신학적 방법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수주의 교의학 서적이 이런 Berkhof의 신학을 그대로 받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론에 있어서 박형룡박사의 방법은 이러한 방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Bavinck의 「Gerefomeerde Dogmatiek」(Kampen, 1928)에서 서론의 두 번째 제목이 교의학의 근본원리이고, 그것은 일반 근본원리와 외적 근본원리, 그리고 내적 근본원리로 구분되어 있다⁷³⁾. 이러한 방법은 Berkhof에 의해서도 계승되어서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⁷⁴⁾. 그러나 박형룡박사는 일반 원리에 대해서 외적, 내적 원리를 묶어서 “인식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⁷⁵⁾. 여기에 대해 차영배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일반계시나, 특별계시, 성령의 영감과 속성, 그 가신성과 정경성에 관한 문제가 모두 교

73) H. Bavinck, 「개혁주의교의학I」, 김영규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pp. 5-7.

74) L. Berkhof, 「조직신학 상하」, 이상원 외 공역,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pp. 6-7.

75) 박형룡, 「박형룡박사저작전집 I」, (서울 :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의신학의 인식론에 관한 문제 하에 다루어진 셈이다. 더욱이, Bavinck나 Berkhof는 먼저 객관적 원리를 다루고, 다음에 주관적 원리를 자세히 다룬 반면, 박형룡 신학은 그 반대로 내적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단히 「이성과 신앙」이라는 소항목으로 먼저 다루었고, 그 다음에 객관적 원리인 계시와 성경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 객관적 원리도 「교의신학의 인식론」이란 큰 제목 하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객관적 원리라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주관적 원리인 것처럼 되고 만다. 결국 교의신학 서론이란 그 원리를 주로 다룬다기 보다는 주관적 인식론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독자로 하여금 신학의 원리에 관한 강한 인상을 줄 수 없게 한다.⁷⁶⁾

차영배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쪽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그것이 박형룡박사의 어떠한 의도 때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박형룡박사 자신이 신학의 내적 원리에 있어서 신앙, 혹은 믿음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Bavinck에게 있어서나 Berkhof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신앙만을 내적인 원리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⁷⁾. 오히려 이성에 의지하여 신학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박형룡박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신앙보다 앞선 이성”을 말하는 듯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원래 이러한 방법은 박형룡박사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Charles Hodge⁷⁸⁾에게서 나왔는데, Hodge의 서론을 보면, 이제까지와는 전

76) 차영배, pp. 91-92.

77) 두 분 모두 분량 면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순서도 비판할 보편적 원리와 객관적 원리 뒤에 위치하여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게 위치하였다.

78) 최근 번역된 그의 「Systematic Theology」 표지에는 그에 대한 인물평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9세기 최고의 미국 칼빈주의 신학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1815년에

혀 다른 형식을 접하게 된다. 그것을 Bavinck의 그것과 비교하자면, 제1장에 다루고 있던 교의학의 개념과 역사 등이 없어지고 “방법론”이 나온 다음에 제2장에 “신학”, 제3장에 “합리주의”, 제4장에 “신비주의”, 제5장에 “신앙의 규칙에 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 그리고 제6장에 “개신교 신앙의 규칙”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제3장 “합리주의”이다. 여기에서 그는 합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Hodge는 합리주의자들의 이성적 사고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그 이성을 통해서 신학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순에 처하고 있다⁷⁹⁾.

그런데, 박형룡박사의 글에 이러한 모순들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딕체로 강조되어 있다. “이성은 이것에게 오는 계시의 증거들을 판단하여야 한다. 신앙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여 진리를 이지적으로 수납함이니, 성경은 도무지 상당한 이유에 의함 없이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⁸⁰⁾

이 외에도 박형룡박사의 신앙에 대한 이성의 강조는 박형룡신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진술되어 있다.

2. 박형룡박사의 성찬이해

박형룡박사의 성찬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성찬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글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박형룡박사는 성찬에 대한 논문을 단 한편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설교 한편만을

프린스턴 대학을, 1819년에 동 신학원을 졸업하였다. 2년간 프랑스와 독일에서 공부하였고, 1822년부터 1878년까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다. 그의 신학은 주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었고, 스콜라적 칼빈주의, 특히 투레틴(Turretin)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하지의 사상은 성경의 축자영감과 무오성을 존중하는 시각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79) C. Hodge, 「조직신학 I」, 김귀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pp. 59-91.

80) 박형룡, Ibid., pp.180-181; C. Hodge, p. 83.

남겼다. 따라서 박형룡박사의 성찬이해를 위해서는 성찬에 관한 설교 “나를 기념하라⁸¹⁾” 를 들여다보고, 그의 신학 원리와 병행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한다.

박형룡박사는 이 설교에서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본문으로 택하였다⁸²⁾. 이 본문은 Luther와 Zwingli의 논쟁이 있었던 Marburg 회의의 가장 격렬했던 쟁점이었던, “Hoc est corpus meum(이것은 내 몸이라)” 는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이다. 따라서 박형룡박사의 성찬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형룡박사는 이미 조직신학 서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인식론”, 즉 이성에 의한 신학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론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학의 원리를 뒷받침할 만한 이해와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교의 처음을 살펴보면, 첫 성찬의 자리에 모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감을 말한다.

저가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상하시며, 그 피를 흘리신 참담한 광경은 과연 얼마나 참담하였습니까? 그 비참한 광경을 예비적인 장면에서부터 눈을 감고 상상하여봅시다.⁸³⁾

박형룡박사는 설교의 서론을 감정에 호소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비장함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 후에 그는 설교의 방향을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생생한 설명을 통해 말씀의 깊은 데로 이끌어내고 있다. 겯세마네 동산에 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81) 박형룡, “나를 기념하라”, 『박형룡저작전집 XIX』, pp.283-287.

82)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83) Ibid., p.283.

이렇게 당부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피하사 말씀하시되 내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막 14:32-34) 하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때를 면하여 달라고 피와 땀으로 기도하였습니다.⁸⁴⁾

처음 기대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이 후에 계속해서 “달려드는 악한들”, “홍봉”, “구타와 결박이 잔인하고 참혹하니”, “이리때 중에 한 마리 양은 위태하고 가련”, “추회하고 비도망극”, “연민휴척”, “비감하고 송구하여”, “용용감회를 진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등의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베드로의 부인사건 후에도, 베드로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 그 자리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토대로 예수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술 뒤에는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신세! 천만중이 용위하여 강립위왕하러 한 것은 오직 연전사요 만찬석에서 십여 제자가 동사동생을 약속한 것이 오직 어제밤 일어났건만 차일피시 그 십자가의 한 머리를 도울 자도 없음이여!⁸⁵⁾

십자가에 달린 그 육체에 정철이 수족을 뚫으니 그 때의 고

84) Ibid., pp.283-284.

85) Ibid., p.285.

통을 경험 없는 우리가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 영안을 열게 하여 오늘밤 그 참상을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통곡 소리를 높여 슬피슬피 봉탁하고 마음과 몸을 다 드러서 주님의 은혜를 갚아봅시다.⁸⁶⁾

주님의 은혜를 갚는 내용이 참으로 이상하게 들린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가운데, 예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정하신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고작 우리의 슬픈 마음을 통해 감사를 받기 위함이 아닐진대, 박형룡박사는 자신의 설교에서 감정에 호소하려다 보니, 이런 작은 실수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설교 내에 “주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본 의미를 곡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들이 있음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쉬운 것은 설교의 마침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진술의 방식이 계속되고 있을 뿐,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있지 못하다. 그의 설교는 히브리서 12 : 3-4절⁸⁷⁾ 인용과 존 뉴튼의 “기억이 모두 상실된 때에 말하기를 두 가지는 결코 망각할 수 없으니 자기가 큰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망각할 수 없다”⁸⁸⁾는 진술을 인용하면서 마치고 있다.

3. 기독교론에 있어서 개혁주의 독특성에 대한 이해정도

86) Ibid., p.286.

87)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88) Ibid., p.287.

기독론에 있어서는 성찬론보다는 좀더 많은 저술을 남기고 있다. 「박형룡저작전집XIV」에 실린 ‘제7장 기독론과 구원론’의 5편의 논문이 그것인데, 그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두 번째 논문인 ‘게노시스 기독론’이다.

‘게노시스 기독론’은 원래 개혁주의 기독론의 독특성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위 ‘무교회주의자’들의 그리스도 일성론을 비판하기 위해 박형룡 박사가 저술한 것으로 이같은 기독론의 발생원인을 논문 서론에 밝히기를 Luther파와 Calvin파의 연합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한 형태의 기독론”⁸⁹⁾이라고 하였다.

이 논문에 눈에 띄는 한 문장이 드러난다. 그것은 Luther파의 신학자이며 Erlangen대학의 게노시스학과 신학자인 von G. Thomasius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그의 빌립보서 2장의 해석은 Luther파의 해석과도 동떨어진 입장임을 말하면서 이렇게 비판하였다.

...저는 그리스도의 품위에 완전한 단일성과 진정한 인격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격과 인성이 연합하여 신격 전체가 인성 외에 오히려 있었다는 Calvin파의 이론을 피(避)하였다.⁹⁰⁾

여기에서 박형룡박사는 “Calvin파의 이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것이 “신격과 인성이 연합하여 신격 전체가 인성 외에 오히려 있었다”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성찬론의 핵심적 내용인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박형룡박사가 이 내용에 대해 전혀 무지했다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몇 가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첫째는, 왜 이 같은 내용이 박형룡박사의 기독론 논문들 중 단 한 편에 단 한 문장으로밖에 표현되지 못했

89) 박형룡, “게노시스 기독론”, XIV, p.40.

90) Ibid., p.41.

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개혁주의의 독특성을 신학의 핵심 원리로까지 확대하지 못했다는 그의 인식의 부족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둘째는, 왜 개혁주의의 독특성으로 남아있는 귀한 신학의 내용이 단순히 정통을 변증하는 데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박형룡박사는 자신의 신학 일생을 변증하는데 쏟아 놓았으며,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보수적 전통을 세우는데 기여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그의 공적이다. 그러나 바른 신학을 세워 그 신학 아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독교론에서 발견한 “Calvin과의 이론”이 성찬론에까지 드러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박형룡박사는 미처 성찬론에 대한 저술을 남기지 못했을 뿐더러 저술해야할 필요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의 견해에서 성찬의 심각한 이단들의 출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찬론에 있어서 신학이 없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의 원인이 잘 가르쳐지지 않은 데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형룡박사 자신에게서조차 감정에 호소하는 형태의 설교로 나타난 것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 성찬론의 변질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면 지나친 비약인가?

VI. 결론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가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어왔고, 성례가 있어왔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변질되었고, 중세 카톨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도, 바른 성례의 집례도 지켜지지 않은 채, 저희들의 식견에 옳은대로 변질시켰다. 이에 하나님은 특별히 16세기의 종교개혁과 17세기 신학정립의 위대한 기간을 허락하셨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지키고 바른 교회상을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 시기에 많은 논쟁들과 회의들을 통해서 개혁교회의 신학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었으며, 그것이 과거의 교부들의 신학과 그리 다르지 않았으며, 나아가 성경의 진리에 바로 선 신앙고백적 내용들이었다.

그럼에도 개혁자들 가운데 좁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성찬론이었다. 그것은 이미 내면에 기독교론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으며, 나아가 성경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Luther과는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그 본문 자체로 해석하거나, 도움을 언더라도 그 책을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성찬의 해석도 성찬을 언급한 본문인 고전11장 24절에서 “이것은 내 몸이라”는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반해 개혁교회는 Luther과와 같이 “sola scriptura”를 주장하면서도 그 입장이 조금 달랐다. 그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 본문, 심지어 다른 책에서라도, 나아가 다른 저자의 글에서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제1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성찬에 있어서 고전 11장 24절의 “이것은 내 몸이라”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과 연관하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성찬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어

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으며, 나아가 예수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교류 여부와 좌소의 문제, 심지어 기독교론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어려움이었다.

오늘날 개혁신교회를 잇는 한국 장로교회는 개혁신교회의 신학을 받기로 한 교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하나님께 허락받은 개혁신주의의 독특성 중 하나인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찬론, 기독교론, 성경관 모두를 연결짓는 신학의 내용 중 하나로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고백하기에 신학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성찬에 임하는 거의 모든 이들이 성찬의 떡이 의미하는 바를 거의 알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교회 내에서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진 것에 책임이 있으며, 다음으로 목회자들의 신학적 한계에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스승인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어온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몇 사람의 신학자들에게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장로교 보수적 신학의 가장 큰 스승인 죽산 박형룡박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 하겠다. 심지어 그는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개혁신주의의 독특성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글로 표현까지 하고 있다. 또한 신학이 전혀 없던 한국교회에 L.Berkhof의 신학을 소개하고, 그를 통해 개혁신주의전통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야말로 한국교회사에 가장 빛나는 업적이라 하겠다.

비록 박형룡박사가 그 같은 내용을 기독교론에 제한되게 사용하고 성찬론에 역점을 두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그가 이미 이해하고 있던 “신격과 인성이 연합하여 신격 전체가 인성 외에 오히려 있었다”는 내용을 성찬에 적용하고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하셔서 그의 전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은 오히려 그리스도 밖에도 계셔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며, 성찬에 함께 영적으로 참여하

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야말로 개혁교회가 받는 성찬론인 것을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I. 1차 자료

1. 외국자료

- Augustinus. *De Trinitate*,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vol. L, Turnholti, 1970.
- Calvinus, Johanus.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iderunt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Eduardus Reuss, Brunsvigae & Berolinae, 1863-1900(CO).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1800), Albany, 1996.
- _____. *Truth for all Time*, translated by Stuart Olyott, The Banner of Truth Trust, Carlisle, 1998.
- Confession of Faith,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with the Scripture proofs at Large: together with The Sum of saving knowledge, Scotland, 1983.
- Luther, Martin. *"Tischreden: Colloquia"* in D. Martin Luthers Werke (Weimar Ausgabe=WA), 1910.
- Ursinus, Zacharias. *Heidelberg Catechism*, trans. G.W. Williard, WM. B. Eerdmans Publishing, michigan, 1954.
- Zuinglii, Huldrici. *Opera Completa Editio Prima*, Turici ex Officina Schulthessiana, 1832.
- Witte, de Petrus. *Catechizing upon the Heidelberg Catechisme of the Reformed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for English Reformed Congregation in Amsterdam, Amsterdam.

2. 국내자료

- Augustinus. 「삼위일체론」, 김종흡 역,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초판」, 양낙홍 역,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 _____. 「기독교강요 최종판」, 김종흡 외 3인 공역, 서울 : 생명의말씀사, 1992.
- _____. 「칼빈 성경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 성서원, 2001.
- Luther, Martin. 「루터선집」, 지원용 편역, 서울 : 컨콜디아사, 1989.
-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서울 :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II. 2차자료

1. 원서

- Bavinck, Herman. *Gereformeerde Dogmatiek*, J. H. Kok : Kampen, 1929.
- _____. *Our Reasonable Faith*, translated by Henry Zylstra,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7.
- Beza, Theod and Anthonie Faius, *Propositions and Principles of Divinitie propounded and disputed in the universitie of Geneva, Anno Dom, Edinburgh, 1591.*
- Cartwright, Thomas. *A Treatise of Christian Religion or The Whole Bodie and Substance of Divinitie*, Felix Kingston, London, 1616.
- Carson, J.L. / Hall, D.W. [eds], *To Glorify and Enjoy God. A Commemoration of the 350th Anniversary of the Westminster Assembly*, Banner of Truth, Edinburgh, 1994.
- Gillespie, George. *A Treatise of Miscellany Questions*, Edinburgh:

- Robert Ogle and Oliver & Boyd, 1646.
- Heppe, Heinrich. *Die Dogmatik der evangelisch reformierten Kirche*, neu herausgegeben von Ernst Bizer, Neukirchen, 1935.
- _____. *Reformed Dogmatics*, English edition., translated by G. T. Thomson, Michigan, 1978.
- Hodge, A.A. *The Confession of Faith*, the Banner of Truth Trust, Pennsylvania, 1992.
- Kendall, R.T.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to 1649*, 1976.
- Luthartstag, Chr.E., *Compendium der Dogmatik*, bearbeitet von F. F. Winter, Leipzig 1929
- Mitchell, Alexander F., *The Westminster Assembly*
- Schaff, Philip. *The Creeds of Christendom*, Baker, Michigan, 1998.
- Williamson, G.I.,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Phillipsburg, 1964.

2. 번역서

- Augustinus. 「삼위일체론」, 김종흡 역,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 Bavinck, Herman. 「개혁주의교의학 I」, 김영규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 Bavinck, Herman.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 역, 서울: CLC, 1999.
- Berkhof, Louis. 「조직신학 상하」, 이상원 외 공역,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Hodge, Charles, 「조직신학 I」, 김귀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 Hodge, A.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김종흡 역,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 Holtrop, Philip C., 「기독교강요 연구 핸드북」, 박희석 외 공역,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Schaff, Philip. 「신조학」, 박일민 편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Wallace, Ronald S.,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정장복 역,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 Williamson, G.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역,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의회, 2001.
- 牧田 吉和. 「개혁파신앙이란 무엇인가?」, 이종전 역, 인천 : 아벨서원, 2002.

III. 국내자료

-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 서울 : 총신대학교출판부, 2001.
-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 하나, 1998.
- _____.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9.
- _____. 「기독교강요강독 I」, 서울 :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0.
-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서울 : 성광문화사, 1994.
- 박용규. 「죽산 박형룡박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 총신대학교출판부, 1996.
- 박윤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 영음사, 1999.
- 박일민. 「개혁주의의 신조」, 서울 : 성광문화사, 1998.
- 배한국.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 컨콜디아사, 1993.
-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 성광문화사, 1997.
- 이승구. 「성령의 위로와 교회」, 서울 : 이레서원, 2001.
- _____. 「진정한 기독교적 위로」, 서울 : 여수론, 1998.
- 이종성. 「신학과 신학자들」, 서울 : 양서각, 1987.

- 이형기. 「종교개혁과 신학사상」,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 _____.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최병섭. 「개혁신학의 뿌리와 발전」, 서울 : 크리스찬서적, 1998.

IV. 기타자료

1. 논문

- Kang, Seung-Wan. *"The Unity of Substance in the Trinity and the Indivisible Dispensation in Trinitarian God's Outward Works"*,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heology submitted to the Faculty of Anyang Theological Seminary, 2000.
- Oberman, Heiko A. Die "Extra" - Dimension in der Teologie Calvins, in: *Geist und Geschichte der Reformation*, Festgabe Hanns Rückert zum 65. Geburtstag, Berlin 1966,
- _____. *"The 'Extra' Dimension in the Theology of Calvin"*, 「Journal of Ecclesiastical」, vol. XXI, no. 1, January 1970.
- Willis, E. David.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The Function of the So-Called Extra-Calvinisticum in Calvin's Theology*, Leiden : E.J. Brill, 1966.
- 김운태. “삼위일체 신학과 언약사상의 관점에서 본 칼빈의 신학원리” ,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조직신학분과 제3차 논문」, 2001.
- 김지훈. “칼빈에게 있어서 신, 구약의 은혜 언약의 통일성 : 통일성의 기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희보.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서평” , 「신학지남 제63권 2집 (통권247)」, 1996.

- 신문철. “삼위일체적 기독교론”,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조직신학분과 제3차 논문」, 2001.
- 엄현직. “칼빈에게 있어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배경”,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염경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통한 개혁주의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조병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박윤선 박사”, 「개성연 연구자료」, 개혁주의성경연구소, 1998.
- 조성재.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구조가 갖는 신학적 객관성에 관하여”,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차영배. “박형룡신학의 원리”, 「신학지남 제51권 3집(통권202)」, 1984.
- 한유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수정에 따른 신학적 문제점”,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허 찬. “초기 스코틀랜드 장로 정치론에 미친 칼빈의 신학적 영향 연구”,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